

Q4

덕양과 일산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

교통대책...고양선(가칭) 신설

세절역(6호선, 서부선)에서 고양시청까지 고양선(가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창릉신도시, 일자리 거점 발돋움

덕양지역 창릉신도시 130만여㎡ 토지는 기업을 유치하는 자족 용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판교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허브, 기업성장지원센터 등을 차례로 건립함으로써 수도권 서북부의 대표적 일자리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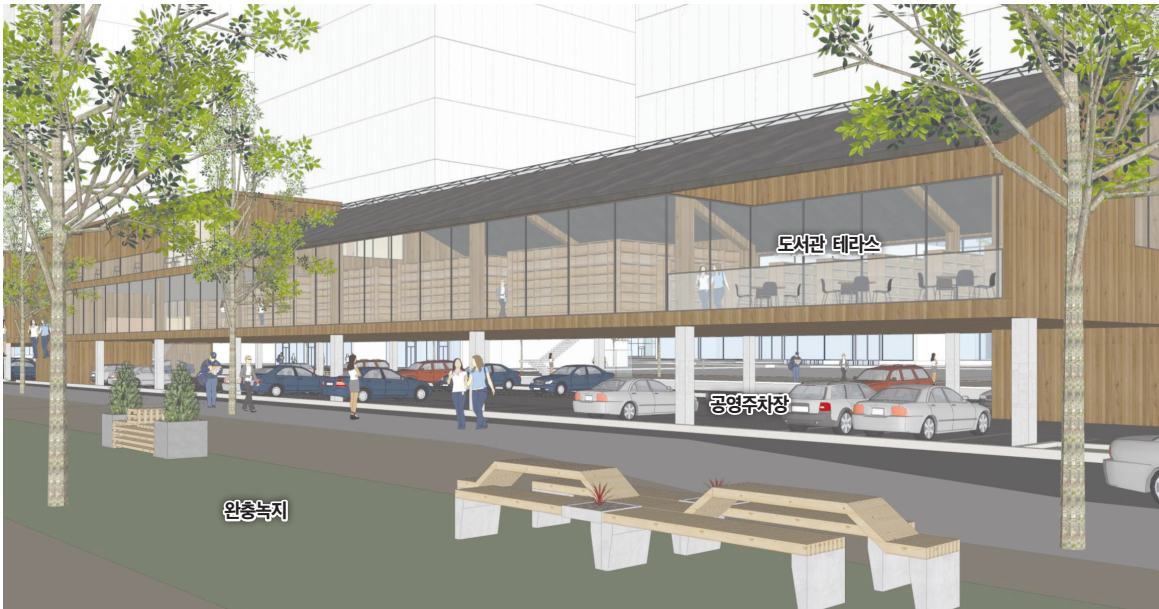
일자리 및 기업 유치 활기

최근 5년간 지식산업센터 8곳(근무인원 5,600여 명)이 덕양구에 입주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추가로 지식산업센터 15곳(근무인원 35,000여 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가 2023년 상반기 중 덕양구 도내동으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덕양지역은 일자리 및 기업 유치 측면에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 논의

고양시는 덕양구 분구에 따른 구청 청사 건립 등 다양한 개발 논의도 진행하는 등 덕양과 일산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Q

&

고양의 미래를 열다 ②

시 본청 이전 및 원당 청사기능 유지

시 본청, 백석동으로 이전
원당 청사, 시청사 기능 유지

각각 지역의 행정타운 육성

A

Q1

시 본청 왜 이전하나?

고양특례시는 시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사를 만들기 위해 지난 6개월간 TF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고양시의 미래발전을 모색하면서도 시민들의 부담은 최대한 줄이고 재원을 절약할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시 본청을 백석동으로 이전하고, 원당 청사는 산하기관 및 사업소 입주를 통해 시청사 기능을 유지하여 각각 지역의 행정타운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배경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속한 이전 실현을 통한
민원인 불편 해소 및 접근성 향상

현 고양시 청사는 고양군(郡) 시절이던 1983년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화된데다 공간도 부족하여 40여 개 부서가 시청 주변 건물에 흩어져 있습니다. 부서들이 여러 건물에 산재해 있고 주차공간도 부족하다 보니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 또한 큼니다. 매년 막대한 임대료가 낭비되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조속한 청사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사를 새로이 건립할 경우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반면, 백석 업무빌딩은 작년 11월 기부채납 판결을 통해 시 소유 건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조속한 이전이 가능한 요건을 갖췄습니다. 고양시는 조속한 청사 이전을 통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리적으로도 백석은 덕양과 일산을 아우르는 중간지점에 위치하며, 고양시 교통의 핵심축인 중앙로, 일산선, 경의중앙선이 연결되어 있어 덕양과 일산 지역주민 모두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원자재발(發) 경제위기 상황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발생한 초인플레이션부터,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정책과 그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에너지 위기까지 무엇 하나 녹록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원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원자재가격 압력에 그대로 노출되며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특히 건설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공사비 증가의 문제죠. 실제로 킨텍스 제3전시장의 사례를 보면, 당초 건축비가 4,454억 원 규모였으나 공사비 증가로 1,844억 원을 증액했고 그 과정에서 사업은 1년가량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시청사 건물을 새로이 짓게 될 경우 당초 추산한 공사금액은 2,950억 원이었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 상황을 감안하면 4,000억 원 이상까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원가상승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킨텍스 사례 등을 볼 때 신청사 건립은 예산 문제로 인해 중도 표류할 위험이 있습니다.